



한국 기업들은 보수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람들 및 프로세스의
난제에 집중할 것이다

한국 IT 리더들은 새로운 IDG 연구에 따르면, JAPAC 지역에서의 많은 기업들이 기존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JAPAC 지역에서의 많은 기업들보다 더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술 이니셔티브에 대한 막심한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IT 리더들은 클라우드 기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회복과 회복탄력성을 향한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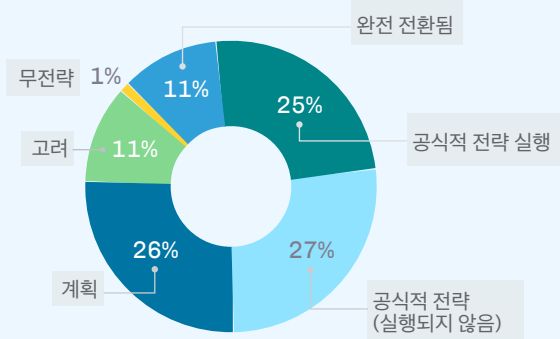
앞으로, IT 리더들은 성공적인 디지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및 사람들과 관련된 난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나타내는 양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거대기업에 의해 지배되지만, 한국은 전 세계 평균의 거의 4배인 390억 달러로 평가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그 스타트업 중에는 11개의 “유니콘”(1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이 있다. 따라서 기성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만, 팬데믹의 영향에 더해, 더욱 민첩한 스타트업들은 현직자들이 전략을 재고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사람 관련 요소들이 전환을 방해하다

해당 지역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대개 디지털 전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고, 56%는 스스로를 회의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현실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특히 한국에 해당하며, 한국에서는 설문조사를 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2 대 1의 차이로 스스로를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완료에 있어서 경쟁업체들보다 다소 뒤처진다. 단지 35%만이 현재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행하고 있거나 완전히 실행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전체 JAPAC 응답자들 중 61%보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 중 78%보다 훨씬 아래이다.

한국 디지털 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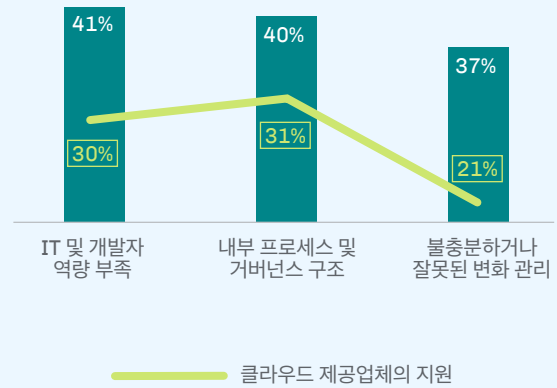


또한 기술 인프라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3개의 주요 카테고리의 난제인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다. 기술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기업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적었다.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최대 장애 요소는 프로세스 및 기술과 관련된다. IT 및 개발자 역량 부족, 내부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변화 관리 등이 그런 기업들이 인용했던 세 가지 최대 난제였다. 핵심 내용은 데이터를 관리할 자원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긍정적 변화 수용으로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므로**, 비즈니스 문화가 더욱 신속하게 전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난제들은 한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영역에서도 분명하다. 한국 기업들은 그 지역의 경쟁업체들보다 레거시 시스템 및 기술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훨씬 더 적지만 내부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구조, 변화 관리, 리더십 바이인 (leadership buy-in) 획득 등에 다소 더 집중한다. 문화는 기술이나 역량보다 더 큰 난제로 보인다.

한국의 혁신 장애물



코로나, 한국에서의 주요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치다

한국에서 팬데믹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영역에 걸친 계획을 뒤집었다: 배출가스 저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더 많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개발로의 이전. 한국 기업들은 그 이니셔티브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영역을 가속화했다: 비용 절감, R&D 실시, 고객 경험의 디지털 전달로의 이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 이런 조치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반등하기 위한 가까운 장래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긴축 정책의 신호이다.

한국의 리더들은 물류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을 보여 주었지만 인적 자원과 고객 경험을 전환하는 데에 상당히 소홀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잘 발달된 기술 인프라와 빈번하게 세계 최고 10위 내의 순위를 차지하는 교육 시스템과 일치한다.

이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의 다른 영역에서 경험한 것과 일치하였다. 가장 자주 가속화된 프로젝트들은 원격 근무 및 협업에 속했고, 다른 것들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특히, JAPAC 응답자들 중 58% (한국에서는 59%)가 원격 근무 및 협업 역량의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거나 가속화하였다.

한국 기업들, 클라우드 제공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다

이 지역의 기업들은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단순한 기술 벤더 이상이기를 바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일관된 결과였다. JAPAC 기업들의 거의 2/3는 비즈니스 목표 수립에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의 지원을 원한다고 말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기업들은 프로세스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희생시키지만 턱키 솔루션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은 클라우드에 대한 열의에서 다소 예외를 보인다. 중국 및 인도네시아 기업들 중 38%에 비해, 이 국가의 응답자들 중에서 5%만 자사의 접근법을 "클라우드 퍼스트"로 기술하였다.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한국 비즈니스 리더들의 비율은 그 지역의 다른 기업들과 일치했지만 엄격한 평가자이다. 31%만 만족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최고 평점을 준 가장 적은 기업들이란 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동일하였다. 비교하자면, 인도 응답자의 54%는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및 일본 기업들은 많은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는 능력을 확신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여러 다른 지역의 경쟁업체들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준으로 단일 클라우드 제공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한다. 중국 기업의 43%에 비해, 60% 이상이 단일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호한다.

다음 단계: 한국 CIO들이 디지털 전환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

한국 기업들 사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실적 접근은 야심찬 기업들이 클라우드 노출 증가 방향으로 자원을 배치하여 경쟁적 우위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데이터 관리를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강력한 바람은 클라우드의 가치를 인정하며 고유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더 광범위한 클라우드 채택에 대한 장애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은 전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에서 그 지역의 경쟁업체들 만큼의 관심만 보여주지만 자사에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공급업체들의 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그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1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면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과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다시 고려하기를 원할 수 있다. 내부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구조, 변화 관리, 리더십 바이인(leadership buy-in) 획득 등과 같은 핵심 역량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집중은 그런 관계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제공되는 심도 있는 전문기술과 모범 사례를 갖춘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기업들이 전환 이니셔티브를 비즈니스 목표와 맞추도록 지원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신흥 스타트업 인기 지역의 들뜬 분위기에, 한국 IT 리더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클라우드 전문기술과 핵심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경쟁업체 지원 모두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위치이다.



다음을 구축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Google Cloud 팀에 연락하십시오

연구 소개

목표

IDG는 14개국 5개 산업부문의 IT 리더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디지털적으로 주도된 전환의 현 상태, 세계적인 팬데믹이 핵심 IT 이니셔티브에 미친 영향, 각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바라는 역량 등을 살펴봤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들이 귀사 고유의 클라우드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방법론

2020년 10월과 11월, 20개 문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로는 금융, 헬스케어, 제조, 통신/미디어 및 리테일/소비재의 총 5개 산업 부문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의 IT 디렉터 이상 직급의 리더가 참여했다.

본 설문조사는 북미(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브라질, 멕시코), EMEA(프랑스, 독일, 영국), 아시아태평양(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에서 실시되었다.

모든 응답자 기업들은 현재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다.